

# 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

## 남녀평등 뜻따라 조순용·손숙 공동사회

### 추도사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가 맡아 동교동·DJ 도서관 들러 오후 6시 안장

#### ■ 미리보는 영결식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 추도사는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원 소장이 낭독키로 결정됐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마당에서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연극인인 손 숙 전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1시간30분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는 평소 동교동 자택에 자신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명패를 나란히 거는 등 유달리 남녀평등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남녀 2명으로 정해졌다.

박영숙 소장은 과거 김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평민당 부총재와 총재권한대행,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김 전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약력보고, 조사, 유족추모사, 종교의식, 생전 영상, 헌화와 분향, 추모공연, 조총발사의 순서로 이뤄진다.

약력보고는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이 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는 장의위원장이 한승수 총리가 각각 맡기로 했다. 또 헌화·분향은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 전직 대통령, 장의위원장, 3부

요인, 정당 대표, 조문사절, 주한 외교단 순서로 진행된다고 최 비서관은 전했다.

이 추모공연에서는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평화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반주 속에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고향의 봄’과 ‘우리의 소원’을 부를 예정이다.

영결식을 마친 후 윤구 행정은 경찰 사이드카의 선도로 김 전 대통령이 살았던 동교동 사저에 들러 유가족이 영정을 모시고 김 전 대통령이 생활했던 공간을 돌아보게 된다. 이어 차량들은 서울광장 등을 거쳐 장지인 동작동 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정부는 노제와 추모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유족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서울광장 등에 추모객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 약식 추모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선 2,300명 참석

광주·전남 시·도민 2천300여명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광주·

전남 추모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시·도민들로 광주 참석자 300여명은 이날 새벽 광주시청에서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다. 전남 지역민 2천여명도 시·군별로 각각 상경

일정에 맞춰 출발할 예정이다. 광주 참석자의 경우 김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5월 관련 단체 회원들이 40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350여개 광주·전남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추모위원회 회원인 시·도민들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 설

### 김 前 대통령 國葬 화해와 통합의 계기돼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늘 국장(國葬)으로 치러진다.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역사의 인물이 된 것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야 하는 광주·전남지역민의 안타까움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전라도의 한’을 풀어준 거목(巨木)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생전에 그토록 열망했던 화해와 통합, 민주주의 실현, 인권, 한반도 평화, 지역균형 발전 등은 남은 자들이 반드시 이뤄야 할 가치임은 틀림없다.

오늘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을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 국장 기간 동안 정치적 견해와 이념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수많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평생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죽을 고비로 붙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의원, 그리고 햇볕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던 이명박 대

통령까지 병실과 빈소를 찾아 화해를 청했다. 평양에서도 조문사절단이 방문함으로써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 가는 길마저 화해와 용서, 통합의 송고한 의식의 장으로 내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대한민국에 던진 책무는 분명하고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합이다. 그동안 ‘망국병’으로 불릴 만큼 고질화된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부터 타파해야 한다. 다행히 김 전 대통령의 문명과 조문을 계기로 화합과 통합의 기운이 일고 있다. 최약의 국면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 역시 대화와 협상의 재개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계기를 살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만 김 전 대통령도 편히 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통합과 화해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 지역과 이념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통합하고 단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살리는 길이다.

### “오늘 국장일, 조기 계양 합시다”

정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3일 전국민이 각 가정에서 조기를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23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달다. 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약천후면 국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계양 방법은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계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 등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3일 전국민이 각 가정에서 조기를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무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23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달다. 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약천후면 국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계양 방법은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계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 등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 /연합뉴스



39년간 사용한 英日사전과 돋보기.



생전 차고 다녔던 보메 메르시에 손목시계.



옥 공예가가 선물한 낙관.

문은 응품들도 공개했다. 해의 출장시 연설원고와 책 등을 넣어 다녔던 서류가방, 외출시 착용했던 연회색의 중절모도 선보였다.

72년 발간연도가 찍힌 낡은 영일(英日)사전과 안경, 돋보기를 비롯해 3년 전 서교동성당 주임신부로부터 선물받은 성경책, 애용했던 태극문양 부채, 침실에 두고 등받이로 사용했던 빨간색 쿠션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DJ측은 “김 전 대통령은 6월 초 시력이 약화되기 전까지는 한국 신문뿐 아니라 돋보기로 사진을 찾아가며 날마다 일본 신문들

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한국의국어대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 강연문 등 DJ가 친필로 첨사 표시를 한 연설원고 7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비서진의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를 거쳐 원고를 구술한 뒤 초고나 나오면 2~4차례 정도 꼼꼼하게 수정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벼루와 연적, 먹 등 서예용품과 함께 DJ의 이름, 호인 ‘후광’,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뜻의 ‘민방일가’, DJ의 평생 신념이었던 ‘행동하는 양심’이 각각 새겨진 낙관 4개, 노벨상 메달 문양의 노벨상 수상 기념품 등도 공개됐다.

DJ측은 “김 전 대통령은 붓글씨를 써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2~3년 전부터는 힘이 약해져 많이 쓰지는 못했다”며 “4개의 낙관은 지난 92년 대선 패배 후 한 유명한 옥공예가가 선물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DJ측은 이날 공개한 유품들을 분향소가 마련된 국회 앞마당에 전시했다. /연합뉴스

### 소탈·검소한 생전의 ‘DJ유품’

#### 10년 간 사용했던 지팡이 등 40여점 공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측은 22일 DJ의 생전 흔적이 담긴 유품 40여점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유품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3일 병원 입원 당시 입었던 회색 양복 상·하의와 양말, 허리띠, 검은색 구두,

그리고 10년 가까이 사용했던 지팡이 등이다.

또 늘 지니고 다녔던 머리빗과 지갑, 손수건, 손목시계,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사용해 온 만년필, 김대중평화재단 로고가 찍힌 수첩, 잠옷, 슬리퍼 등 김 전 대통령의 손때가



원신대학교의 사명을 대변합니다.